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6(土)	17(日)
눈 또는 비 1/6℃	구름많은 눈 -3/2℃

News

- 시의회 보좌관제 필수 통과 ②
- 비 이주여성의 자원봉사 ③
- 남자배구도 금메달 땀 ⑧



Jeollado

- 그사람-육만호 前공천총장 ⑦

Entertainment

- 윤계상 드라마 복귀 ⑧
- 광주출신 배우 이현위씨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유자 ⑬



동양지축은행 장학 56년 역사만 전통
남부대학교
www.nmsu.ac.kr
전남과학대학
www.chunsa.ac.kr

■ 귀농 젊은이 늘어가는 고흥 '남부참다래영농법인'

재배농가 82가구 중 22가구 '화려한 귀농'

고흥군 도양읍 '남부 참다래 영농조합법인'. 안정된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참다래를 재배하는 82개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평범한 영농법인이 화제로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귀농 젊은이들 때문이다. 82개 농가 중 4분의 1이 넘는 22개 농가가 귀농 가구다.

장종혁(30·도양읍 관리)씨는 지난 2003년 각박한 서울 생활을 접고 귀향했다. 장씨는 광주에서 대학 건축과를 졸업한 뒤 서울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그러나 젊은 꿈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던 서울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2천만원이 채 못되는 연봉으로는 언제 집 한칸 마련할지 앞길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2년간의 서울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3년전 귀향을 실행했다.

장씨는 아버지 장장길(65)씨와 함께 올해 비닐하우스 3천여평을 포함, 총 6천5백평에서 참다래를 재배, 40여 수확했다. 연간 수입은 1억 1천만원. 퇴비, 비료, 자재대 등 1천500만여원을 공제해도 부모님과 자신 세 사람의 연봉이 3천만원원을 훌쩍 넘긴다.

장씨는 "아버지로부터 더욱 열심히 농사일을 배워 나이 많은 부모님 일을 덜어 주어야겠다"면서 "아직 적응기지만 농촌을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해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의 꿈도 아무지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재배면적을 1만평 규모로 넓혀 기계화 등 선진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당찬 계획도 밝혔다. 더 나아가 "농촌에서도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해 도시 생활보다 윤택하게 농촌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또

래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1982년부터 참다래농사를 시작했다는 아버지 장장길씨는 "97년에 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 3년 전부터 8천만, 9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7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참다래는 앞으로도 유망한 작목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식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고 대견해 했다.

종혁씨처럼 귀향한 귀농 젊은이는 이 영농조합에 모두 22명이 있다. 물론 40세 이상의 장년 귀농자도 8명이지만, 30대 8명, 20대도 6명이나 있어 요즘 노인 일색의 농촌에서 보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흥 남부 참다래 영농조합의 귀농 성공은 역시 소득이 보장된다는 데 있다. 조합 소속 농가의 평균 소득은 연간 3천800만원 정도. 그러나 귀농가

구의 소득은 2배를 훌쩍 넘는 8천300여만원에 이른다. 땅을 일해도 충분한 소득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고흥 참다래 농가의 귀농사태는 참고할만하다.

전남 남해안, 그중에서도 고흥산 참다래는 국내 최고품으로 꼽힐 뿐 아니라, 수출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도 kg당 2천9백원이란 최상품 가격에 거래됐다.

고흥군 전체 참다래 재배면적은 158ha로 555개 농가가 3천790여t을 생산, 98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흥=주강종기자 gju@

연소득 3천만원대... 서울생활 안부러워



3년전 서울에서 고향인 고흥으로 돌아와 참다래 농사를 짓고 있는 장종혁(왼쪽)씨가 아버지 장장길씨와 내년에도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참다래 나무 가지를 다듬고 있다.

/고흥=주강종기자 gju@kwangju.co.kr



도하 AG 폐막... 한국 2위 지켰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이 16일 새벽(한국시간)카타르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폐회식은 '천일야화(千一夜話)'를 메인 테마로, LED(발광다이오드) 파노라마 기술로 화려하게 꾸며졌다. 한편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 58개, 은 53개, 동 82개를 획득, 일본(금50,은71,동77)을 제치고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종합 2위를 지켜냈다. <관련기사 18면>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당정, 이르면 내년 7월... '반값아파트' 도출 실패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부문으로까지 전면 확대되고, 입주자가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제도가 도입된다.

하지만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인 공공택지 공영개발 방안은 재정문제,

수요 등에서의 시각차로 인해 합의에 실패했다. <관련기사 2면>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집시공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제도가 도입된다. 하지만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인 공공택지 공영개발 방안은 재정문제,

부담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특위 브리핑을 통해 "원가공개를 25.7% 이상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추가로 논의하고 검증제도 조기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고건 "내년 3~4월 신당 출범" 열린우리 "당 해체" 서명운동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계계편 소용돌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동안 정계계편 논의의 중심에 서기를 자제해온 고건 전 총리가 15일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을 찾아 신당 출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여당내의 세력분화도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건 총리는 15일 광주·전남 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형성은 내년 3~4월에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건 총리는 특히 최근 여당내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하며 신당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봉위 위기를 맞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 경우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15일 오후 완료됐으며 당내 신당파와 사수파간 세몰이도 점점으로 치달고 있다.

당내 신당파 모임인 회합 21, 실사구시, 안전적 개혁을 위한 모임(안개모), '국민의 길' 등이 지난 14일부터 당의 발전적 해체와 전대를 통한 통합수입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자 친노(親盧)그룹 등 사수파는 "신당파의 실체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무리하게 세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초기감기 퇴장! 콘택골드!

초기 감기약 - 콘택골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걸렸거나 생각되면 초기 감기약 콘택골드로 퇴장시키세요! 불청객 감기의 파울 플레이엔 콘택골드를 잊지마세요!



본문은 약이 되고, 감기약은 아니요!
본문은 약이 되고, 감기약은 아니요!
본문은 약이 되고, 감기약은 아니요!

유한약품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8 (우) 06252-5400 (대) 06252-0615 (팩) 06252-3033 부산 051482-0071